

## 로씨야민족어의 구성과 그 일반적특성

신철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문제는 언어리론에서 기초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과학적으로 리해하고 정식화하는것은 언어발전과 민족어문제해결을 위한 리론적기초를 마련하고 언어학을 로동계급의 참다운 언어학설로 완성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김정일전집》 제7권 350페이지)

언어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힘있는 무기로 되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든 활동과 호상관계는 언어의 역할을 떠나서 이루어질수 없다.

세계의 모든 언어는 개별적인 민족어들로 특징지어지며 민족어들은 자기 고유의 언어학적특성들을 가지고있다. 문법적특성, 문체적특성 등을 포함하는 해당 민족어의 구체적인 언어학적특성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체득하여야 외국어로서의 민족어를 언어실천에서 성과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로씨야민족어의 구성에 들어가는 로씨야표준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언어변종들과 그 일반적특성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언어학의 범주에 속하는 표준어의 개념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표준어의 일반원리와 기본범주들을 연구할 때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개별적인 민족어들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되는 표준어들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는것이 중요하다.

표준어는 사회언어학의 기초적개념으로서 민족어소유자들이 표준으로 내세우고있는 민족어의 사회적존재형태이다. 해당 민족의 표준어에 의하여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집단성원들의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무결한 언어교제가 실현되게 된다.

엘. 웨. 셰브라(Л. В. Щебра)는 《로씨야어선집》(《Избранные работы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М. 1957)에서 《표준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표준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리해되도록 하는것이며 기본기능은 표준어를 모두에게 접수되고 모두에게 리해되며 모두에게 의무적인 언어로 만드는데 있다.》라고 정식화하였다.

다음으로 현대로씨야표준어를 중심으로 하는 로씨야민족어의 변종들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로씨야민족어구성에는 로씨야표준어와 함께 지역방언(территориальный диалект) (민간소방언(народный говор)을 포함한다.)과 통용어(жаргон), 속어(просторечие) 등이 속한다.

지역방언은 지역적특성에 의해 차이나는 로씨야민족어의 한 형태이다.

지역방언은 어음론과 어휘구성 그리고 형태론과 문장론적특성에서 로씨야표준어와 차이이며 자기 고유의 지역적특성을 가진다. 지역방언의 이런 특징들은 매개 방언 (혹은 소방언)들에 고착되어있으며 지역방언은 그 소유자들의 입말에서 형성되어 입말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소유자들의 항시적이고 밀집된 거주지역안에서만 쓰이고있다. 아르한겔스크, 야로슬라블, 오를 등 로씨야의 여러 지역의 방언들은 해당 지방구역들에만 분포되어있다.

로씨야어에는 두개의 기본민간소방언인 북부로씨야소방언과 남부로씨야소방언이 존재하고있다.

북부로씨야소방언은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특징적이다.

우선 력점없는 모든 음절들에서 **о**와 **а**가 구별되게 발음되면서 《오까니예》(оканье)라는 사투리를 형성한다.

례: борода – [бърΛда] (턱수염), молодой – [мълΛдой] (젊은), табаком – [тъбΛком] (담배), дорого – [дорΛгъ] (비싸게), выдала – [выдΛлъ](넘겨주다), дома – [домΛ](집에서)

또한 파열음자음 [г]의 발음이 매우 강하다.

또한 뒤불이 -ушк-, -ишк- 를 가진 남성명사들이 제2의 형태로 격변화한다.

례: дедушка – без дедушка (할아버지), мальчишка – к мальчишку (사내아이), 또한 일부 명사와 형용사들의 복수여격과 조격의 형태들이 외형적으로 같은것이 특징적이다.

례: к пустым ведрам – 여격, с пустым ведром – 조격 (빈바께 쓰들)

또한 квашня (게으름뱅이), сковородник (지짐판들개), зыбка (요람) орать (밭을 갈다), пеун (수닭), кузнец (대장공) 등과 같은 지역방언단어들이 널리 리용되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남부로씨야소방언은 다음과 같은 언어적특징을 가진다.

우선 **о**와 **а**가 력점앞 첫 음절에서 일치하게 발음하는 《아까니예》(аканье)라는 사투리를 형성한다.

례: сова – [сΛва] (부엉이), трава – [трΛва] (풀)

또한 《게까니예》(геканье)라고 하는 마찰자음 [г]의 발음이 매우 강하다.

또한 뒤불이 -ушк-, -ишк- 를 가진 남성명사들이 마치 녀성명사처럼 격변화형태를 가지는것이 특징적이다.

례: дедушка – у дедушки (할아버지), мальчишка – с мальчишкой (사내아이)

또한 дежа(반죽통), чапля(모자), чапельник(지짐판들개), люлька(물부리), кочет(수닭), коваль(대장쟁이) 등과 같은 지역방언단어들이 널리 리용되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소방언소유자들의 지역방언에 기초한 언어교제는 가정생활, 농촌생활, 민속풍습 등에 극히 제한되어 이루어지고있다.

사회적방언은 《통용어》(жаргон)와 《전문직업통용어》(арго)로 구분되어있으며 자기의 기능적사명으로부터 《그 뜻을 잘 파악하고있는 사람들의 언어》라고 볼수 있다.

통용어와 전문직업통용어와의 계선은 명백하지 않으며 사회적방언은 크지 않은 일정한 사회적집단의 일상생활어이다. 통용어는 공동활동과 공통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유사한 사회적처지와 생활환경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져 쓰이고있으며 그 과정에 여러가지 직업적통용어, 일정한 사회적집단의 통용어, 감옥이나 류형지에서 쓰이는 범죄자들의 통용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사회적방언은 단어, 단어결합, 성구, 어구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사회적방언에 기초한 언어생활에서는 특별한 억양이나 일부 개별적인 단어들을 특별하게 발음하는것 그리고

문구구성을 특별하게 하는것을 찾아볼수 있다. 민간소방언과는 달리 사회적방언은 자기의 언어체계를 가지지 않지만 상당히 엄격한 내적규범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은 그 소유자들에게 의해 입말로 보급되고있다. 그러한 내적규범은 단어와 단어형태의 선택과 그것의 리용수법, 약속된 눈짓과 몸짓의 동반과 같은 자기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이와 같이 민간소방언과 사회적방언은 입말형태로만 전달되며 매우 제한된 보급령역을 가지고있다. 다시말하여 민간소방언은 일정한 지역에서, 동일한 방언을 소유한 사람들속에서만 쓰이고 사회적방언은 공통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속에서만 리해되고 쓰인다.

여러 지역과 민족에 대한 력사학적탐험기들에는 방언과 통용어들에 대한 자료들이 널리 수록되어있으며 오늘날 그것은 방언사전과 통용어, 직업통용어사전들에도 적극 반영되었다. 그리고 방언과 통용어들의 구체적인 언어적사실들과 어휘-성구적단위들, 어음 및 문법적특성들은 전문기록들과 사전들에 고착되어있으며 일정한 지역의 구전, 관혼상제, 생활세태 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 방언과 통용어자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현시기 문학예술작품본문에 방언과 통용어를 리용하는것은 등장인물의 언어행위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고 작품에서 묘사되고있는 지역의 언어적특색을 보여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방언과 통용어를 리용하는것은 해당 민간소방언이나 통용어 소유자들의 언어를 규범화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속어에 대하여 지난 시기에는 《다듬어진 말》(《украшенная речь》)에 반대되는 《거친 말》(《простая речь》)로, 《서적어》(《книжный язык》)에 반대되는 《단순어》(《простой язык》)로 리해하고 쓰이였다.

속어는 로씨야어회화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고있으며 민족공동의 성격, 전인민적성격을 가지고있다.

민족공동의 성격을 가진다는것은 속어가 전체 방언들과 통용어들속에 퍼져있는 단어들과 함께 넓은 의미에서 모든 로씨야단어들의 어음론적형태들과 문법적형태들을 다 포함하고있다는것을 말한다.

전인민적성격을 가진다는것은 속어가 로씨야민족어소유자모두에게 리해되고 리용될수 있는 언어적단위들로 구성되었다는것을 말한다.

속어는 언어적단위로서의 자기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단어들의 력점구성에서 제일 명백히 나타난다.

례: 단어 **хозя́ева** 대신에 **хозяева́** (주인)로

단어 **свёклы** 대신에 **свекла́** (사탕무)로,

단어 **включён** 대신에 **включен** (포함된)

또한 발음에서 나타난다.

실례로 접미사 -изм은 연자음 [з']로 발음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어 **альтруизм** (자기 희생성)을 **альтруизьм**으로 발음하고있다.

또한 형태론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례: 단어 **вы́боры**(선거) 대신에 **выбора**를

**хотят**(원하다-동사 3인칭형태) 대신에 **хочут**을

**матери**(мать의 단수 생격, 여격, 복수주격형태) 대신에 **матеря**를

**в пальто**(외투를 입고) 대신에 **в пальте**를

ехать на метро(지하철도를 타고가다.) 대신에 ехать метром 또한 격지배에서 나타난다.

실례로 동사 ругаться (욕하다) над кем-чем을 ругаться на кого로 쓰고있다.

또한 일부 단어들의 리용에서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있다.

실례로 《반대로》의 의미를 가지고있는 단어 обратно가 단어 опять(다시)의 의미로 리용되며 입말에서 скажите, где(《어디에 ...이 있는지 말씀해주시옵시오.》) 대신에 не подскажите, где(《어디에 ...이 있는지 귀찮게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문장구조를 리용하고있다.

또한 속어에는 부드러우면서도 친절한 표현으로부터 거친 상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채를 가진 단어들이 들어있으며 그런 단어들은 표준어에 자기의 중성적인 동의어를 가지고있다.

례: 속어 шарахнуть - 표준어 ударить (때리다),

속어 драпануть - 표준어 убежать (내빼다) 등

또한 속어에는 표준어에는 없는 농촌생활의 현실을 나타내는 단어들도 포함되어있다.

례: долгуша (수레의 한 종류를 명명하는 단어)

다음으로 로씨야민족어에서 차지하는 로씨야표준어의 지위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표준어는 민족어의 체계안에서 중심적지위를 차지한다.

표준어는 매개 민족에게 고유한 언어문화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과 우수성을 나타내며 모든 민족성원들의 사상과 감정을 가장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수법들을 충분히 반영하고있다. 로씨야표준어에서 언어적요소들의 문체론적체계와 그 적용수법들은 로씨야민족어소유자들의 언어생활에서 본보기로, 규범으로 인정되어 쓰이고있으며 로씨야표준어는 로씨야사람들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예술, 법률 등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광범히 쓰이고있다.

로씨야표준어는 11세기부터 시작하여 오랜 력사적단계들을 거쳐 전인민적언어(общенародный язык)의 체계를 이루었으며 작가, 정론가, 정치가, 과학자들의 저술활동, 연설자들과 배우들의 언어활동, 각이한 내용과 사명을 가진 서적들과 대중보도수단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입말교체를 통하여 발전되고 세련되어왔다.

바로 이러한 표준적인 언어적요소들이 언어교체에 리용되는 과정에 로씨야표준어는 오늘날 현시대인간들의 사상감정과 현실세계의 대상과 개념, 현상들의 다양성을 가장 명료하면서도 정확하게, 분류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로씨야표준어는 로씨야민족어의 인민-회화어에도 그 원천을 두고있다.

19세기 40년대로부터 20세기초의 로씨야표준어는 로씨야민족어의 인민-회화어분야와 밀접하게 호상 연계되고 생긴한 인민-회화어를 원천으로 하면서 자기의 구성체계를 더욱 풍부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 더욱더 새롭게 갱신되어나갔다.

로씨야표준어는 몇가지 특징들을 가진다.

첫째로, 로씨야표준어는 본성적으로 자기의 전통을 가진다.

언어의 전통은 한 세대가 다른 세대와 교체되고 언어생활이 계승되는 과정에 형성되며 로씨야표준어도 응당 자기의 전통을 가지고있다.

로씨야표준어는 력사적으로 서적체로 고착되는 과정에 전통적인 특성이 강화되게 되었으며 표준어의 계승성발전과정과 시대적발전과정에 합리적인 언어표현수단들은 표준어에 고착되게 되었다.

표준어의 서적체적인 고착은 새 세대들로 하여금 전세대가 이룩한 언어수단들의 리용경험과 전통, 다음세대에 절박하게 필요한 언어적수단들과 수법들을 합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언어문체들을 더욱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조건과 전제를 마련하였다.

표준어의 서적체적인 고착을 로씨야표준어의 기본징표들중의 하나로 내세운다고 하여 이것이 로씨야표준어의 기능체계안에서 입말형태의 존재를 배제하는것은 아니다.

둘째로, 로씨야표준어규범들은 언어교제에서 언어수단리용규칙의 총체로서 로씨야어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의무성을 띠게 되며 그런것으로 하여 로씨야표준어는 로씨야아카데미야문법과 주석사전들에 철저히 고착되어있다.

로씨야에서 첫 표준어주석사전으로는 18세기말에 출판된 《로씨야아카데미야사전》(《Словарь Академии Российской》)을 들수 있으며 현대표준어주석사전으로는 1999년에 제4판으로 출판된 예쓰. 이. 오제고브와 엔. 유. 슈베도바의 《로씨야어주석사전》(《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 И. Ожегов и Н. Ю. Шведова)을 들수 있다.

셋째로, 현대로씨야표준어는 서적체와 함께 회화체에서도 자기의 언어적기능을 수행하는것이 특징적이다.

17세기 로씨야에서의 언어환경을 평가하면서 페. 뻬. 필린(Ф. П. Филин)은 《로씨야표준어의 시원과 운명》(《Истоки и судьбы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М. 1981)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17세기에는 표준어의 회화체변종이 없었고 지금과 같은 속어도 없었으며 로씨야표준어자체도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모든 입말, 회화형태는 모스크바지방의 공통어(койне)를 위주로 하는 수많은 지역적 및 사회적소방언들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였다. 다른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통어들도 존재한것은 확실하나 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있다.》(107~108페이지)

로씨야표준어의 회화체는 1850-1860년대에 아. 예쓰. 뿌슈킨의 언어에서 구체화된 전민족적인 문화적표현규범들에 기초하여 형성되었으며 이 시기를 로씨야민족어의 기능화시기로 보고있다.

오늘날 서적체와 회화체는 로씨야표준어의 기본적인 문체적령역들로 되고있다.

넷째로, 로씨야표준어는 문체론적으로 구별된다.

로씨야표준어는 인간활동의 모든 령역에서 표준어소유자들의 교제를 보장하며 기능적으로 구별되고 문법적결합에서 차이하며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주위세계의 여러 개념과 표상을 나타내는 수법에서 구체화되는 《기능문체》라고 불리우는 언어수단들의 내적체계를 가지게 된다.

정치, 과학기술, 법률과 경제, 문학예술, 공식 및 비공식적교제분야들에서 진행되는 언어교제 행위들은 자기의 특수성으로 하여 과제들로 하여 여러가지 변종들의 기능문체들을 형성한다.

그러한 기능문체들로는 현대로씨야표준어에서 과학문체, 공식사무문체, 정론문체, 회화체, 문학예술문체와 대중입말연설체(устная публичная речь) 등으로 규정할수 있다.

우리는 로씨야민족어의 구성에 들어가는 로씨야표준어와 여러 언어변종들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켜 현대로씨야어에 대한 지식을 폭넓게 가짐으로써 외국어교육의 내용을 더욱더 풍부히 해나가야 할것이다.